

“고향팀에서 남은 힘 모두 쏟겠다”

■ 美 생활 접고 KIA행 택한 서재응 귀국

마침내 그가 돌아왔다. 11일 새벽 5시 30분, 뉴욕발 비행기를 타고온 '나이스 가이' 서재응(30·KIA)이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편안한 가족 점퍼에 청바지, 운동화를 착용한 그는 고국 땅이 무척이나 반가운 듯 장시간의 비행기 여행에도 피로한 기색없이 힘차게 입국장에 들어섰다.
이날 부인과 두 아이를 미국에 남겨두고 홀로 귀국한 서재응은 “고향팀 KIA에 입단해 기분이 너무 좋다. 팀의 숙원인 10번째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뛰겠다”며 밝게 웃었다.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서울에 여장을 푼 서재응을 호텔 35층 식당에서 만났다.
-한국에 돌아온 소감은.
▲10년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연고팀 KIA와 계약을 해 기쁘다. 고향(광주)팬들도 저를 많이 반겨줬으면 좋겠다. 열심히 해서 KIA의 10번째 우승을 이루고 싶다.
-메이저리그에 대한 아쉬움은 없는가
▲왜 아쉬움이 없었는가. 하지만 살면서 모던일에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다. KIA에서 좋은 기량으로 부활해 보상을 받겠다.
-미국과 일본행이 좌절돼 한국을 선택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솔직히 미국은 한계를 느껴 이미 포기했고, 일본행을 결심했다.
지바 롯데구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계약이 성사 직전까지도 갔다. 도장만 찍으면 일본에서 야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부모님과 아내가 일본행을 반대했다.
아내가 “미국에서도 고생 많이 했는데, 또 일본에서 고생을 해야겠냐”고 했다. 일본야구를 거쳐 KIA에는 35살때 돌아오려고 했는데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꿈을 접었다.
-그렇다면 KIA행에 후회가 남는다는 말인가.
▲그렇진 않다. 최종 결정은 내가 한 것이다. ‘힘과 기량이 살아있을 때 KIA로 돌아가는 게 낫겠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내가 마지막으로 돌아갈 곳은 KIA였다. 그 시기를 좀 당긴 것이고,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쏟고 싶다.



KIA타이거즈에 입단하기로 한 서재응이 11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입국장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서재응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진표포토제공

리를 할 예정이다. 아내와 아이들은 그 전에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어 1월 곧바로 팀 훈련에 합류할 계획이다.
-끝으로 고향 팬들에게 한마디.
▲야구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뜨거운 응원도 해 주셨으면 한다. 그라운드를 벗어난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한편 지난 7일 KIA와 계약금 8억원, 연봉 5억원, 옵션 2억원 등 총 15억원에 계약한 서재응은 당분간 서울에 머문 뒤 17일 고향 광주로 내려와 구단 사무실에서 입단식을 갖고 18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리는 납회식 참가, 선수단 상견례 등을 가질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아쉬움 있지만 국내 복귀 기뻐
가족들 반대로 일본행은 포기
계약금 만족...V10 위해 최선”

-계약금이 20억에서 50억 설까지 떠돌았다. 그런데 후배 최희섭(15억 5천만원)보다 덜 받았다. 계약에 불만은 없다.
▲계약금(15억원)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메츠에 입단할 때와 탬파베이와 계약할 때 등 모두 세차례나 10억원대라는 거액을 받았다. 이 정도면 된 것 아닌가.
-지난해 LG로 복귀한 봉준근 등 해외파들이 부진했다. 부담은 없다.
▲부담보다는 하고자하는 의지만 있다. 시작 전부터 그런 부담을 가지고 가면 오히려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
-기량이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던데.
▲그 말은 맞다. 20대 전성기 시절처럼 공을 던질 수는 없다. 하지만 흐른 세월만큼 노하루도 많이 축적했다. 말보다는 내년 시즌에 ‘아직 서재응이 죽지 않았구나’라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
-예전과 달리 타이거즈의 위상이 많이 추락했는데.
▲프로팀은 꼴찌를 할때도 있고, 우승을 할때도 있다. 내년 시즌엔 새로운 감독님과 코칭스태프, 그리고 선수들이 힘을 모으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내가 왔다고 해서 팀의 전력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
-조범현 KIA감독과 접촉은 있었나.
▲잠전에 전화로만 인사를 드렸다. 이른 새벽에 전화를 드리 죄송하다고 했더니, 함께 열심히 해보자며 힘을 주셨다. 조만간 찾아뵙고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릴 계획이다.
-한국 타자들에 대한 분석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타자들이 힘과 스피드는 좋은 반면 정확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다. 또 WBC(월드베이스볼 클래식)때 함께 생활해 보니 보통 실력은 아닌 것 같았다.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
-얼굴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훈련은 했는 지.
▲지난 9월 이후 공을 잡지는 않았다. 대신 수영과 러닝 등으로 기초체력 보강에 중점을 뒀다. 몸무게도 좀 줄었고, 몸도 가볍다.
-내년 3월 올림픽 예선전 참가 여부가 관심인데.
▲KIA에 적응하는 게 우선이다. 일단 내년 1월 콤파에서 시작되는 팀(KIA) 훈련에 참가한 뒤 생각해볼 것이다.
-향후 일정은.
▲2주 간 국내에 머문 뒤 미국으로 돌아가 플로리다주 탬파에 있는 집에서 마지막 정

■ 최희섭 오늘 훈련차 미국행

“건강하고 강한 몸 만들어 오겠습니다.”
KIA 거포 최희섭(28)이 12일 오후 3시 대한항공 KE017편을 이용해 미국 LA로 출국, 겨울 몸만들기에 들어간다.
최희섭은 앞으로 LA를 거쳐 포틀랜드에 머물면서 한달 가까이 개인 훈련을 한 뒤 내년 1월 9일 KIA의 콤파 전지훈련에 맞춰 귀국할 예정이다.
혹독한 2007년을 보낸 최희섭의 훈련에

“강한 몸 만들어 오겠습니다
재응이 형 합류 든든하네요”

대한 각오는 남다르다.
사실 최희섭에게 올 시즌은 아쉬움이 많이 남은 한해였다. 메이저리그의 큰 꿈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복귀했지만 입단 초 부상으로 신음했고, 뒤늦게 3할대의 타격감을 되찾지만 팀이 꼴찌에 머물며 빛이 바

랬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12월 초에 예정됐던 결혼식이 파혼되는 아픔까지 겪었다.
혹독한 2007년을 보낸 최희섭은 연말을 맞아 어수선한 주변 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미국 자율훈련을 선택했다. 12월 초에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지만 비자문제로

일정이 연기돼 그동안 광주일고에서 개인 훈련으로 몸을 만들어 왔다.
최희섭은 밝은빛이 보이는 2008년을 생각하면 행복하다고 한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함께 생활했던 광주일고 선배 서재응의 합류 때문이다.
최희섭은 “한동안 여러가지 문제로 머리 속이 복잡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했다”면서 “특히 재응이 형이 팀에 합류에 든든하다.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훈련해 재응이 형과 함께 내년시즌 좋은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출국 소감을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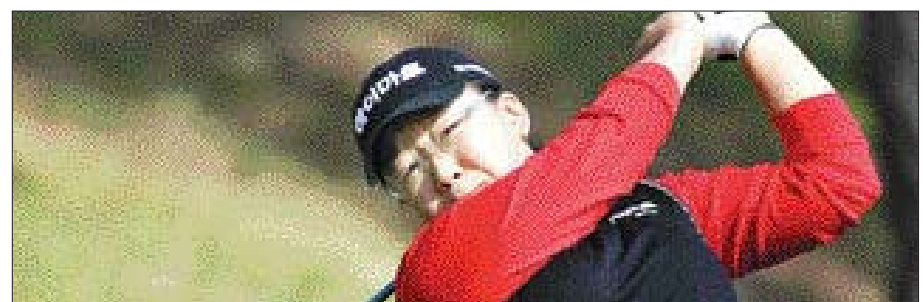
11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삼성 파브 프로야구 2007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각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선수들이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MVP 리오스 ‘황금장갑’도 차지

외국인 투수로는 사상 첫 영예... KIA 이현곤 탈락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
수상자를 배출, 올해 최다 수상팀으로 기록됐다.
김동주는 타율과 최다안타 타이틀 홀더 이현곤(KIA)과 치열한 접전 끝에 171-159, 12표차로 2000년 이후 7년 만에 핫코너의 주인 자리를 되찾았다.
공수에서 단연 돋보였던 '2외수' 고영민과 '발야구' 선봉장 이종욱, 도루 53개로 대도의 자리에 오른 이대형(LG·208표)은 생애 처음으로 황금장갑을 끼었다.
특히 이종욱은 397표 중 몰표에 가까운 350표를 얻어 최다득표, 최고 득표율(88.2%)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했다. 나머지 외야 한 자리는 홈런(31개), 타점(101개) 2관왕 삼성 심정수(220표)에게 돌아갔다.
SK에서는 포수 박경완이 조인성(LG)을 191-159로 누르고 우승팀의 체면을 세웠다.
롯데 박기아 이대호(281표)도 홈런(29개), 타점(87개) 2위에 오른 실력을 인정 받아 1루수 부문 골든글러브 2연패를 달성했다. '수비의 귀재' 박진만(삼성·218표)은 유격수 부문에서 다섯번째 골든글러브를 끼어 스승 김재박 LG 감독과 이 부문 최다 수상 투수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KLPGA 2008년 시즌 14일 개막



신지애 독주 계속 된다

SK텔레콤)을 무려 8타차로 따돌리며 정상에 올랐다.
그러나 지은희(21·클러웨이)와 안선주(20·하이마트)가 '신지에 타도'를 외치며 일찌감치 현지로 날아가 적을 훈련에 들어간 것도 신지애의 2연패 도전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던 국가대표 삼총사 정재은(18), 유소연(17·대원고), 최혜윤(17·예문고)과 2부투어 출신으로 하반기 정규 투어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김혜윤(18·하이마트) 등도 주목할 만한 선수들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골프·연도 회원권개별 전문기업
특별리 회원권
골프장 시세/연도: 3,500 / 900 ~ 5,200
골프장 시세/연도: 4,300 / 파인힐스: 12,200
골프장 시세/연도: 8,200 / 힐링: 7,400
상담 문의 (062)351-0095